
第119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2000年4月19日(水) 午後2時 開式

第119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開會式順

1. 開式
 1. 國旗에對한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및護國英靈에對한默念
 1. 開會辭
 1. 閉式
- (司會 議事擔當官 李錫和)
-

(14時 09分 開式)

○議事擔當官 李錫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1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 齊唱)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一同 默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着席)

다음은 崔鍾午 議長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議長 崔鍾午; 존경하는 高 建 市長과 劉仁鍾 教育監을 비롯하여 關係公務員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봄꽃이 만개하여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는 따뜻한 봄날에 제 119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18회 임시회 이후 우리 나라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 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열릴 예정인 남북정상회담이 남과 북에서 동시에 발표되어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4월 13일에는 제16대 총선이 실시되어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5월 3일까지 보름동안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먼저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정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연초에 보고한 바대로 각종 시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6월 정례회에서 다룰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을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승인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을 처리하고, 그 외에도 시민생활과 관련되는 각종 조례안 등을 면밀히 심의하여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봄에는 유난히도 기후이상현상이 심각합니다.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 연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경작에 필요한 물부족현상은 물론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 공급마저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산야가 메마름에 따라 전국적으로 산불이 거의 매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강원도 강릉, 삼척과 고성지역에서는 산불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서울도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등 명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바 이러한 천혜의 보고가 산불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구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수량의 부족에 따른 물 사용의 절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옛말 그대로 물을 물 쓰듯 아끼지 않고 마구 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현재 유엔이 분류한 물 부족국가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나라는 OECD회원국 중 1인당 물 소비량이 가장 많아서 이와 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물 기근국가가 되리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물 사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상하수도요금의 현실화와 함께 노후 수도관의 교체, 절수용기기 및 중수도시설의 설치 확대 등 물 절약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한강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가 전에 비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동안 꾸준히 시행해 온 한강지천

살리기와 수질개선노력의 결과이며, 가까운 미래에 버드나무 우거진 한강둔치에서 송어가 펼떡이는 한강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개발위주가 아닌 보존위주의 개발을 통해 생태계를 보존함으로써 그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를 그려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택시...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질을 향상시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하겠고, 노숙자대책도 지금까지의 수용 보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자활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자활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에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순조로운 월드컵 준비와 내실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여성...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계획대로 알차게 추진되도록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사, 학생과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 서로합심하고 고민함으로써 우리의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며, 특히 학교운영의 책임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금번 제119회 임시회에서도 우리 모두는 시민을 위한 시민의 대표자로서 부지런히 민의를 수렴하고 정책대안을 개발하여 시민에게 생활의 안정과 쾌적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과정에서 보셨듯이 이제 우리 市議會도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며, 시민을 두려워하

는 마음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온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도 건강하신 가운데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제119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議事擔當官 李錫和; 이상으로 제118회 서울特別市議會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時 19分 閉式)